

“민주당이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민주연구원, AI, 로봇, 국방,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4회 연속 경청간담회 개최

- ✓ 17일(월) 오후 2시 40분, AI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총 4회의 간담회 개최
- ✓ AI, 로봇, 방위산업, 바이오산업의 애로사항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청취
- ✓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민주당의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사장 이재명, 원장 이한주)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성장은 민주당, 미래 빅테크기업을 찾는다」라는 경청간담회(이하 「경청간담회」)를 개최한다. 17일(월) AI산업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로봇산업, 방위산업, 바이오산업 순서로 간담회를 갖는다.

행사를 주최하는 이한주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복과 성장’이고, 무엇보다 한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청간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청간담회는 민주당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연주 국회의원),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태스크포스(단장: 정동영 국회의원, 이하 AI진흥 태스크포스),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되며, 향후 미래의 성장산업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미국의 경제성장이 매그니피센트7라 불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에 의해서 주도되는 등, 빅테크 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민주연구원의 이번 경청간담회는 이러한 동향에 착안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성장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분위기와의 관련이 있어서 주목을 끈다. 6일 집권플랜본부 주형철 K-혁신니즈 본부장의 “성장 우선”,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선언에 이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속간담회의 문을 여는 제1차 경청간담회는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AI진흥 태스크포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AI산업의 주요 기업과 연구자들의 의견들이 발표된다. 특히 민주당 AI진흥 태스크포스를 이끌면서 당내의 AI관련 논의를 주도했던 정동영 AI진흥 태스크포스 단장이 직접 기업들과의 토론을 주재할 계획이다. 정동영 단장은 “AI 3강 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AI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주제”라며 여야를 비롯한 국가적인 협력을 강조해왔다.

패널로는 SK텔레콤 이영탁 부사장, 홍석환 두다지 대표,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실장이 참여해서 대기업, 스타트업, 벤처투자기업, AI정책연구 등의 관점에서 한국의 AI기업들의 성장가능성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AI진흥 태스크포스는 토론 결과를 종합해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속간담회는 AI산업(17일(월) 오후 2시 40분)을 시작으로, 로봇산업(20일(목) 오후 2시), 방위산업(24일(월) 오후 2시), 바이오산업(27일(목)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다.

[첨부] 1차 경청간담회 (AI산업, 17일(월) 오후 2시 40분) 포스터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1차 AI산업

2월 17일(월) 오후 2시 40분
정책위의회의실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회 전예현 민주당연구원 부원장

인사발 이한주 민주당연구원장

이연주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좌장 정동영 국회의원 (민주당 시진용태스크포스 단장)

패널 이영탁 부사장 (SK텔레콤)
홍석환 대표 (두다지)
김판건 대표 (미래과학기술지주)
안성원 시정책실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주최 | 민주당연구원 ·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 민주당 시진용태스크포스

